

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				
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/ 무라카미 하루키				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				
작년부터 독서모임에 불어 닥친 하루키 열풍(?)에 휩쓸림				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,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.				
<p>나고야에서 살며, 고교 시절 내내 다섯 손가락처럼 불어 다니던 5인의 또래 친구들. 그 중 주인공 '쓰쿠루' 혼자 철도역 건축을 배우기 위해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. 자주 고향에 돌아와 어울리며 예전처럼 지내던 어느 날, 네 명중 누구도 쓰쿠루를 만나주지 않고,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채 그룹에서 내쳐지게 된다.</p> <p>그리고 16년이 흘러 그 이유를 알고자 친구들을 한 사람씩 만나게 되고, '시로'라고 불리던 유즈가 몇 년 전 죽은 사실을 알게 된다. 그리고 16년 전,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시로가 말했는지에 대해서도.</p> <p>P13 또한 다자키 쓰쿠루를 제외한 넷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공통점이 있었다. 이름에 색깔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. 남자 둘은 성이 아카마쓰(적)와 오우미(청)이고 여자 둘은 성이 시라네(백)와 구로노(흑)이었다. 그 때문에 다자키는 처음부터 미묘한 소외감을 느꼈다.</p>				
		남자		여자
다자키 쓰쿠루(無)	아카 (赤/빨강)	아오 (靑/파랑)	시로 (白/흰색)	구로 (黒/검정)
-주인공. 평범하고 철도역을 좋아함	-탁월한 성적, 배려심 많은	-력비부, 잘 어울리는 사람	-아름답고, 예민한 감수성	-생기 넘치고, 시니컬한데 웃긴
<p>p.118. 기담은 질문보다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. '아버지는 그 이상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. 뱀이 입에 문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천천히 삼킨 다음 시간을 들여 천천히 소화시키듯이'.</p> <p>p.304. 우리네 인생에는 어떤 언어로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법이죠.</p> <p>P376. '그리고 내가 유즈를 죽였을지도 몰라. 어떤 의미에서는'. / '-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유즈를 죽였어. 우리는 저마다 그런 상념을 짊어진 거야'</p>				
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.				
<p>고등학교 또래 그룹 5인 중, 혼자만 '색채가 없는' 주인공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1장부터 흥미롭기 시작함.</p> <p>소설에서는 끝까지 누가 시로(유즈)를 죽인 것인지, 왜 쓰쿠루에게 그 사건을 뒤집어 씌운 것인지 밝혀진 바 없음. 다만 흥미로운 추측이 존재함 (모임에서 얘기할 예정)</p>				